

오월 대동의 한마당...시민들 ‘마중’

‘무등올림픽축제’ 25~27일 전통문화관 주먹밥체험, 진도씻김굿 등 무대
김산옥, 무형문화재 보유자 공연

‘5월 광주정신을 함께 맞이하길.’
전통예술무대와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2023무등올림픽축제’가 올해 주제를 ‘마중’으로 정했다. 5월 광주정신을 맞이한다는 의미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뜻을 담았다. 아울러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대동의 한마당을 열고 시민들을 마중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전통문화관에서 열리는 무등올림픽축제는 주먹밥체험, 진도씻김굿 등 다양한 무대 외에도 조선판스타 김산옥,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들의 공연을 볼 수 있다.

여는 무대는 25일(오후 5시) 풍류달빛공연. 야외 너털마당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이난초, 윤진철, 박시양(고수) 등 국가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들이 출연해 흥보가와 적벽가를 선보인다.

본격적인 축제 무대는 26일부터 열린다. 1시부터 열리는 망종체험은 보리피리 만들기, 보리빵 먹기, 한복체험, 민속놀이 등으로 꾸며진다. 24절기 중 9번째 절기인 망종(芒種)은 곡식이 종자를 뿌려야 할 시기를 일컫는다. ‘보리는 망종에 베라’는 속담이 있듯이 망종까지 베고 논에 벼도 심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후 3시부터는 솟을대문 입구에서 창작탈춤 ‘무등산 호랑이’의 무대가 펼쳐지며 너털마당에서는 주먹밥 체험이 예정돼 있다. 무형문화재 음식장 최영자, 이애섭, 민경숙이 만든 전통 절기음식 전시와 ‘5월 주먹밥’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그림책 명장면을 직접 만들어보는 팝업북 만들기도 진행된다. 그림책 문화활동가 윤화진과 김병하 작가의 동화 ‘고라니 텃밭’으로 명장면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이다.

다음 이어지는 무대는 공연 ‘마중’. 조선판스타 우승자인 국악인 김산옥과 뮤지컬 배우이자 성악



해원과 상생을 지원하는 진도씻김굿 장면.

〈진도씻김굿보존회 제공〉

가인 선수가 무대에 올라 ‘못찾겠다 꾀꼬리’, ‘넬라 판타지아’ 등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곡들을 선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7일(11시)은 ‘청소년 춤 축제’가 예정돼 있다. 광주 무용 유망주들의 무대를 시작으로 입석당에서는 구연동화 ‘팔죽할머니와 호랑이’와 보리피리 만들기가 진행된다. 무형문화재 대목장 박영곤 전시 해설로 시작하는 ‘구연동화’ 코스는 사전접수를 받아 운영한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옷놀이, 제기차기 우승팀에게는 쌀이 경품으로 주어진다.

서석당에서는 토요상설공연 무형문화재 초청 공연으로 방성춘 예능보유자와 고수 국가무형문화재 박시양 보유자의 동조제 판소리 ‘춘향가’를 관람할 수 있다. ‘어사또 춘향모 상봉 대목’부터 ‘춘향모가 탄식하는 대목’ 등 동조제의 탄탄한 사설 내용과 방성춘 보유자의 곡색은 성음을 들을 수 있는 무대다.

27일은 광주민주화운동당시 시민군이 도청을 지키던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보존회(대표 김오현)에서 준비한 ‘진도

씻김굿’(4시 30분)이 해원과 상생을 담은 야외무대에서 펼쳐져 축제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2일간은 ‘윤림동 스텝 투어’가 진행된다. 윤림동 미술관과 유관기관에서 마련한 전시와 체험을 즐기며 스텝프를 4개 이상 받아오면 무농약 쌀 1kg을 받을 수 있다. 스텝프를 받을 수 있는 코스는 홍림교에서 무등산으로 가는 방향으로 국문미술관, 무등육아원, 우재김미술관, 드영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무등산국립공원탐방센터, 의재미술관 등이다.

팝업북 만들기과 구연동화 등 일부 체험은 사전접수해야 한다.(선착순 20명) 축제 정보는 광주문화재단과 전통문화관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참조.

전통문화관 관계자는 “이번 무등올림픽축제는 5월 광주정신을 함께 맞이하자는 뜻을 담고 있어 어느 때보다 의미있는 행사들로 꾸러질 예정”이라며 “무등산 인근에서 여러 기관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의 마당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패션 본고장 이탈리아 유학시절의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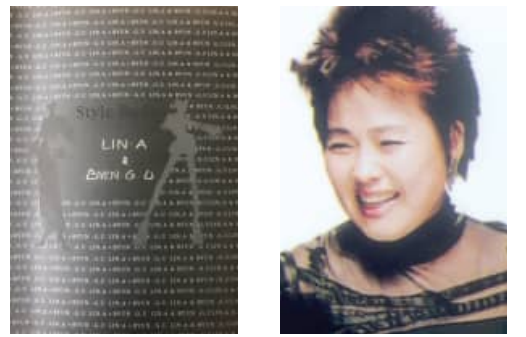
패션디자이너 변지유 ‘린아(LIN·A) & 변지유 스타일북’ 펴내

“변지유의 패션은 내면의 소리를 표현하는 것 같다. 다시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만나는 더 깊은 영혼의 세계. 만년 소녀의 미소를 잃지 않는, 그렇지만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순수함이 세상과 패션의 사랑으로 더 가까워지는 순간이다. 그녀는 패션으로 시, 그림, 기도를 노래하는 디자이너다.”(서양화가 한희원의 추천 글 중에서)

광주의 대표적인 패션디자이너 변지유(변지유 부띠끄 대표·사진)씨가 20여 년 전 딸과 함께 떠난 이탈리아 유학시절의 추억과 작업을 엮은 ‘린아(LIN·A) & 변지유 스타일북’(왼쪽)을 펴냈다. 이 책은 당시 모녀의 동반 유학으로 화제를 모았던 두 사람의 패션 여정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것으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딸(린아)의 포트폴리오 작업이 소개돼 눈길을 끈다. 변씨는 50이 넘는 중년의 나이에 20대 딸과 함께 패션의 본고장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세폴리 패션학교로 유학을 떠난 후 귀국해 지금까지 50여 년간 패션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180여 페이지에 달하는 스타일북에는 디자이너로서의 상상력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100여 점에 넘는 스케치와 포트폴리오가 수록돼 미래의 패션디자이너를 꿈꾸는 지방생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술에 조예가 깊었던 딸이 누웠던 뉴욕 거리의 사진과 블록화된 지도, 월드 트레이드센터의 빌딩 이미지 등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작업들은 회화적 이미지와 패션을 일체화 하는 실험적 시도도 짚는다.

변씨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딸을 마음에



품고 사느라 함께 유학길에 올랐던 이탈리아 시절의 작업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서 “패션의 중심지인 유럽에서 공부하며 작업했던 포트폴리오들이 조금이나마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변씨는 파리 프레타 포르테, 밀라노 컬렉션 등에 참여하는 등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친 지역의 대표적인 패션디자이너다. 또한 지난 2008년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선정하는 디자인 산업 발전 유공자상을 수상했으며(사)금화여성회 장학회를 10년간 이끌면서 여성들의 인권과 장애우들을 위한 나눔봉사활동에 앞장서왔다. 광주패션협회 회장, 제9회 코리아패션 대상 수상, 19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 특별행사, 2011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특별기념전 국제미술의상전 참가 등에 참가했다. 현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맞은편에 자리한 ‘변지유 부띠끄’에서 패션디자이너로 활동중이다.

〈발해그래픽스·3만9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영화 ‘양림동소녀’ 서울국제노인영화제 대상

5·18광주민중항쟁 43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제작된 5·18을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 ‘양림동소녀’〈사진〉가 2023년 제15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이상훈)는 지난 2022년 제13회 광주여성영화제 폐막작이던 임영희·오재형 감독의 ‘양림동 소녀’가 올해 서울국제노인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영화는 진도에서 태어나 광주로 유학 온 이야기를 비롯해 광주5·18을 겪은 이야기, 노년에 이르러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된 엄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양림동 소녀’는 광주전남문화운동 1세대인 임영희 감독과 2021년 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독립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된 ‘피아노 프리즘’의 오재형 감독이 함께 제작했다. 임영희, 오재형 감독은 가족 관계다.

임영희 감독은 5·18 당시 극단 광대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카세트테이프 제작, ‘임을 위한 행진곡’ 제작 등에 참여한 광주전남문화운동의 1세대이다.

한편 이조훈 감독의 ‘송암동’은 18일 광주극장



상영을 시작으로 23일 효천역에서 진행되는 효천평화문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여수 극단 예술마당, 강진 극단 청자, 광주 극단 밝은밤, 조선대극예술연구회, 광주독립영화협회 구성원들이 제작진과 배우로 참여했으며 주연 및 조연을 맡은 배우들이 대부분 광주·전남 출신이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5·18광주민중항쟁 43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제작된 5·18을 다룬 영화 등이 궤거를 이루고 있어 기쁘다”며 “이번 작품들을 통해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기후 위기...환경 회복을 위한 예술의 사회적 역할은

김용구·정운화 등 젊은 작가 7명
31일까지 은암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시대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환경의 중요성을 문제로만 인식하고 그쳐서는 안 된다. 새로운 변화와 방안에 모색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실천하지 않고는 유의미한 결실을 기대하기 힘들다.

환경 회복을 위한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찰해보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이 진행하는 ‘환경 회복을 위한 예술 행동’전이 그것. 창작스튜디오(제림동)에서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광주 동구에서 작업 활동을 하는 젊은 작가 7명을 초대했다.

김다인, 김용구, 성을, 손만석, 손승민, 임근수, 정운화 작가는 영상을 비롯해 사진, NFT, 회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도시개발, 방치된 쓰레기, 자연에 대한 무관심 등을 주목한다. 이들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한편 지구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목한다.

김다인 작가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역발상을

통해 고민한다. 힐링을 위해 자연을 찾는 인간이 과연 자연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문한다.

김용구 작가는 무심코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를, 성을 작가는 음료수 캔의 이미지를 활용해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을 표현한다.

손만석 작가는 자연풍경을 영상으로 담아내며 손승민 작가는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영상으로 포착했다.

아울러 사라져가는 동네에 대한 흔적을 NFT를 통해 구현한 임근수 작가 작품과, 도시화로 병들어가는 자연을 초점화한 정운화 작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정수빈 학예연구원은 “이번 전시는 기후위기 시대 예술의 역할을 고민하고 대안적 담론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며 “예술은 인간의 실존을 이끌고 인식 전환을 견인하는 일종의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는 동구청 ‘2023 미술관·박물관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리사이클 아트 체험 프로그램이 오는 25일(엄마의 한복)으로 만든 우리 집 화병), 26일(커피자루)로 캔버스 전을 대신한 오브제 만들기)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다인 작 ‘거참 쉬었다 갑시다’

봄에 떠나는 그라운드를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
------------------	----------------------	--